

## 새로운 游學을 빕니다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 1.

송영배 선생님이 2008년 2월로 그간 교단에서 연구와 교육을 해오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간단하게 이력을 훑어보자. 1944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에게 관광지인 수원화성을 어린 시절에 놀이터로 보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철도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철도청에 취직하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진학을 했다.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노장철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좀 더 나은 환경에 공부를 하기 위해 당시로는 어쩔 수 없이 유학의 길에 올랐다. 국립 대만대학에서 두 번째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에 귀국하여 당시 진보적 지식인이 많던 한신대학교 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88년부터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재직하다가 2009년 2월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삶의 굽이 한 곳 한 곳마다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인데, 이렇게 무미하게 적고 보니 미안한 느낌이 든다. 미안함을 줄이기 위해 선생님에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이야기를 조금 보태어보자.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공부 이외에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간간이 소주를 시대와 삶에서 오는 번뇌를 달랜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철학과 독일어에 대해 선행 학습이 되어있던 친구 이태수 선생님과 우정도 한 번씩 털어놓곤 했다. 대학원 시절 동양철학을 전담해서 가르치는 교수진이 없어서 김경탁선생님으로부터 원전을 읽던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고 말하곤 했다. 대만 유학 시절에는 학문적으로 성취를 거두지 못하진

듯했다. 독일에서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서 해외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귀국 시기가 늦추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한신대에 재직할 때 이동희·임익권·정명숙과 같은 제자를 만난 좋은 추억, 고인이 되신 강돈구 선생님의 인품을 숭회하곤 했다. 서울대에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지 못한 것,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게 한 것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말하곤 했다. 선생님은 건강 문제로 잠깐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완전히 회복했고 일찍부터 정년 이후를 생각해서 양평에 연구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제2의 자유로운 연구 시절을 보내고 있다.

## 2.

선생님은 오랜 연구 기간 동안 많은 실로 업적을 내놓았다. 귀국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해서 출판한 『중국사회사상사: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한길사, 1986)를 필두로 해서 정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엮은 『제자백가의 다양한 철학흐름』(사회평론, 2009)까지 술하게 논문과 저·역서를 내놓았다.

삶의 궤적만큼이 학문의 궤적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쓴 글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면 선생님의 연구 성과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 1) 제자백가의 철학

1982년 독일에서 귀국한 뒤에 일정 기간 왕성하게 연구를 한 분야이다. 선진철학하면 공자·맹자·순자, 노자·장자만 알려져 있던 상황에서 선생님은 양주·목적·상양 등 그간 동양철학에서 다루지 않던 인물의 사상을 학계에 보고했다. 이러한 관심은 제자백가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설을 곁들인 원문 번역, 『제자백가의 사상: 원전 자료로 본 중국철학사(고대편)』(현암사, 1994)로 귀결됐다. 정년을 전후로 이 책의 개정판 작업에 큰 관심을 두었고, 아마 지금도 틈틈이 그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아울러 그간 제자백가의 사상과 관련해서 썼던 글과 아직 다루지 못한 인물을 합쳐서 선생님의 시각이 묻어나는 고대사상사 한 편이 출간되기를 바

라마지 않는다.

『제자백가의 사상』을 출간하면서 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귀국하고 만난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으니, 철학적 분위기는 가난했던 시절의 조용하고 고상한 형이상적 분위기에 영미(英美)의 ‘분석철학’이 가미되었을 뿐, 현실감 있는 생동적 철학의 분위기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특히 동양철학은 ‘유불도’(儒佛道)라는 수천 년 묵은 고고한 동양의 향기만이 아직도 의연할 뿐, 역사 속에서 고민하였던 동양 지성인들의 처절한 외침과 투쟁의 현장성은 아예 학문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았다. 역사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동양철학의 진리는 오직 ‘유불도’ 그것뿐인 듯싶었다. … 이 같은 고요한 중국철학계의 적막함을 부수고 역동적인 역사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민하는 지식인들의 파나는 생생한 삶의 장으로서 중국 지성사를 소개해 볼 요량을 갖게 되었다.”

## 2) 중국 근현대철학

독일에 유학하면서 선생님은 철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했다. 박사 학위 논문을 번역한 책의 서문에 이를 적시하고 있다. 처음에 현상학적 인식이론과 유식론의 비교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할 때까지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일찍이 서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및 대만대학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1972.2)하기까지 주로 형이상학적인 문제, 인식론적인 문제, 동서비교철학 등 소위 ‘순수’철학에 정열을 기울였다. 머릿속에는 스피노자, 노자, 장자의 소요유의 세계, 하이데거의 ‘존재’개념, 유가의 천명사상, 후설의 현상학과 불교의 유식론 등 온갖 잡다한 동서철학의 개념들이 나의 머릿속에서 파도치고 있었다.”

튀빙겐대학에서 회의와 공허를 겪으면서 사고의 전환을 겪었다. “어느 철학사상이든 그것은 구체적 사회의 산물이며, 그 철학자·사상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각기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그들의 이성과 이상은 그 값을 지니는 것이며, 바로 이 객관적인 토대(시대상황)가 그 사상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생명의 근원을 모른 채 곁에 떠

오른 현란한 개념들을 잡으려 했고, 또한 ‘잡았다’는 착각을 했었는지 모른다.” 이후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헤겔과 마르크스 등의 철학적인 근본충동 속에는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인으로서 현대 ‘중국혁명’의 의미에 대한 강한 철학적 인식의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중국혁명을 탈유교화의 과정 및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로 보는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귀국 이후에도 간간히 루쉰이나 덩샤오핑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중국근현대철학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관심이 넓어지긴 해도 당시의 체험은 학문 연구 내내 변치 않은 신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3) 동서 문명의 비교

한신대와 서울대 초기에 선진시대의 제자백가를 주로 연구하시다가 90년 중반부터 관심을 기울인 영역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마테오 리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대학원 수업에서도 한 동안 『천주실의』 등 마테오 리치의 저작을 강독했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천주실의』와 『기인십편』 등을 번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마테오 리치에 주목을 한 것은 아마 그의 선교활동이 1990년대 학계의 큰 주제였던 동서문명의 융합과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의 활동이 동서의 비대칭적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선례로 간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의 단초는 『천주실의』를 번역하고서 머리말에서 던진 물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서 문명의 교류에는 상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파괴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야만적 적대성 이외에 다른 대화의 길은 없는 것일까? 상보적으로 융합하는 대화의 길은 어떻게 처음부터 차단되었을까? 도대체 이런 새로운 대화의 지평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할 것인가?”

마테오 리치로 촉발된 동서 문명의 융합에 대한 관심은 『인간과 자연』(공저: 철학과현실사, 1998)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논형, 2004)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아마 서울대에서 가

장 많은 시간을 이 주제로 씨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최근에 동양의 사유를 '유기체적 자연관'으로 종합하기에 이르렀다. 후학들 중에 이 분야를 잇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운 느낌이 든다.

#### 4) 기타

한국에서 학자가 '전문' 영역만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 자신이 사유 지평을 확대하면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좁은 문에 안주하기 않으려고 한다. 또 주위와 학계에서 연구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맡기며 글을 써보라고 권유한다. 이런 내외의 동기로 인해 선생님은 주희, 정약용 등 성리학, 조선성리학, 실학과 관련된 글을 집필하기도 했다. 크게 하나의 흐름으로 엮을 정도는 아니지만 연구의 범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지금쯤 그간 섭렵한 학식과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동서를 아우르고 고금을 녹이는 문제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기대해마지 않는다.

#### 3.

나는 1988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용은 그 이후로 선생님과 관계를 이어오면서 직접 듣거나 책에서 본 것이다. 옆에 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지 않았느냐 라는 걱정이 든다. 혹여 선생님의 진면목을 글로 잘못 전하게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과 무관하고 잘 모르고 글을 쓴 필자의 허물로 여겨주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배우기만 하던 시절에서 배우고 가리키는 시절로 바뀌면서 '선생님'의 속내를 헤아리게 된 것도 많다. 흔히 애를 낳아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안다는 하듯이 말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선생님을 덜 힘들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느낌이 든다. 선생님에게 진 빚을 선생님에게 갚지는 못하겠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후학들에게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다져본다.

학문적 엄격함은 아직도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엄격함을 내세우면 소통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간에 기다리는 고통의 질과 양이 만만치 않다. 엄격함의 기준을 수직선상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떤 것이 걱정인 것인지 사람마다 사안마다 씩름한다. 이로 애를 태웠을 선생님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던 길의 여운이 느껴진다. 아울러 선생님이 쌓고 가진 자산이 묻히지 않고 널리 쓰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년을 하고서도 선생님이 건강을 유지하며 하고자 하는 연구에 진척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